

한국불교와 사회복지

서병진(성운)*

• 목 차 •

- I. 서론
- II. 한국불교와 사회복지의 이해
- III. 사회복지활동과 종교발전의 관계
- IV. 불교사회복지 실천사례
- V. 불교사회복지의 과제와 방향
- VI. 결론

*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한글요약

종교는 그들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전개하는 활동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보편적 자선이 사회복지활동이다. 종교 가운데 특히 불교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존엄과 평등사상에 이념과 가치를 두고 중생구제의 방편으로 오늘날 표방하는 복지활동을 실천했던 것이다.

과거 전통사회와는 달리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로 생겨난 것이 사회복지이며, 개인 또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에 불교가 주체가 되어 불교의 가치규범이나 원리·사상 등을 기반으로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불교사회복지라 하며, 여기에서 사회복지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과 인간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인 점이다.

불교가 이러한 대사회적 실천행을 하는 목적은 불교의 이념과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활동을 포교라고 한다. 결국 복지와 포교, 불교와 사회복지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 바로 인간의 행복 추구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불교 사회복지활동은 대사회적인 실천행인 바 가장 효과적 인 포교 수단이다. 종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는 그 종교의 성장과 발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사회복지활동 정도에 따라서 그 종교가 얼마나 사회적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불교사회복지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다. 따라서 불교이념의 현실화를 통해 사회복지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생복지의 극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아미타 극락정토 건설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주제어

종교, 불교, 사회복지, 불교사회복지, 포교, 중생복지.

I. 서론

최근 국가의 복지정책 기조는 생산적 복지와 복지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복지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이타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동기이고, 둘째는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및 지적 자원이며, 셋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전달체계이다.

종교는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민간 부문이다. 이러한 민간부문이 복지국가 건설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민간 복지를 담당하는 종교기관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 그렇기에 종교사회복지의 한 영역을 점하고 있는 불교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증폭되었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인간에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가 사회복지활동을 통해 사회적 제 기능을 다함으로써 간접적인 선교나 포교로 이어지는 것이다.

포교는 불교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해시키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고(苦)를 여의고 락(樂)을 얻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복지와 포교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종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가 그 종교의 성장과 발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복지 활동 정도에 따라서 그 종교가 얼마나 사회적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의 사회복지활동의 참여는 그 종교의 성장과 발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종교적으로는 포교 차원에서의 역할과 사회적으로는 민간자원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불교가 이러한 대사회적 실천행을 하는 목적은 불교의 이념과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다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이다. 결국 복지와 포교, 불교와 사회복지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 바로 인간의 행복 추구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가 포교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고, 불교는 그 방편을 통해 중생구제를 함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제 기능과 민간복지 자원의 역할을 동시에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복지활동을 통한 포교가 대사회적 실천행인 바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불교이념의 현실화를 통해 포교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불교종단의 조직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지 하에 II. 한국불교와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 그리고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III. 사회복지활동과 종교발전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복지선교 사례를 통해 종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에 따른 성장과 발전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불교의 복지 포교를 살펴본다.

IV. 불교사회복지 실천사례에서는 붓다와 아쇼카의 복지실천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현대사회에서 계승·실천하고 있는 대만 자제공덕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전술한 바를 토대로 V. 불교사회복지의 과제와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한국불교와 사회복지의 이해

1. 사회복지 이해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19세기 이후 산업화 또는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전통적인 사회 제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예방 내지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사회복지이다. 여기에 사회과학의 발달로 인해 과학적 수단이 동원됨으로써 근대적 사회복지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의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노인·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육성·지도·치료·재활 등의 서비스 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사회보장·보건·의료·주택·고용·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의미로 정착되었다.¹⁾

우선 ‘사회복지’란 단어의 의미를 보면, ‘복(福)’과 ‘지(祉)’는 모두 ‘복(福)’을 의미하여, 잘 산다는 것을 나타낸다. 복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welfare’ 역시 ‘well’과 ‘fare’의 합성어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안녕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지(welfare)란 ‘행복한 삶’, ‘안정되고 만족한 삶’, ‘만족할만한 생활환경’, ‘생활욕구가 충족된 삶’으로 표현²⁾된다. 이 의미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복지의 대상이며, 누구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1) 서병진, 『New Guide 불교사회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솔바람, 2010), p.20.

2) 서병진(2010), 상계서, pp.100-101.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혹은 학자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사회현상이나 정책목표, 혹은 추구하는 지향점 등에 대한 국가별 차이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사회복지란 개인 또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³⁾”이라고 정의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가는 방식이 가장 포괄적이라고 본다.

2. 종교사회복지

‘사회복지’에 관한 정의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사회복지’ 또한 어떠한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종교사회복지를 조홍식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종교가 행하는 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⁴⁾

종교가 전개하는 모든 사회활동과 서비스는 자신이 이념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이념과 가치는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와 관련되며,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불교의 ‘정토세계(淨土

3) 서병진(2010), 전게서. p.23.

4) 조홍식, 「종교사회복지활동의 방향과 과제」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제1회 심포지엄발표논문, 1998), p.12.

世界)나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나라’(Kingdom of God), 이슬람교의 ‘이슬람 영역(Daral-Islam)’ 등 각 종교들이 지향하는 이상사회의 모습은 물질적 풍요와 사회정의 그리고 평화가 실현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세계를 지칭한다.⁵⁾

이와 같이 각 종교들은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전개한 활동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보편적 자선이 사회복지활동이다. 따라서 종교는 고대사회로부터 중요한 민간사회복지 전달체제로 기능해왔으며, 그 종교가 제시하는 보편적 가치와 윤리적 선(善), 그리고 쌓아온 사회복지의 경험과 역사는 근대사회복지의 발달에 기반이 된 것이다.

3. 불교의 이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교는 인도에서 붓다에 의해 탄생한 종교로서 붓다가 성도 후 자신의 깨달음을 설하면서 기원된 것이다.

붓다(Buddha)는 ① 깨달은, 이해된, 현명한, ② 각자(覺者), 불타(佛陀)⁶⁾ 등의 뜻을 가진 빠알리어 이며, 이를 한자로는 불(佛)이라고 표기한다. 교(敎)는 가르치다, 본받다, 가르침 등의 뜻을 가진 한자어이다. 그래서 흔히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라고 설명되고 있다.

더욱이 『열반경』에서는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라 하여 일체 중생은 본래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며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불교의 의미에 대입하면 불교가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라는 단순한 해

5) 노길명, 「종교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종교와 사회』 제1권 제1호, 2010, p.192.

6) 퇴현, 전재성 편저, 『빠알리-한글사전』(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5), p.518.

석 이면에는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다. 정리하면,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붓다가 되는 가르침이다.

4. 불교사회복지의 이해

불교에서는 복지를 산스크리트로 Svastyayana라고 하며 그 의미는 행복, 吉祥이며, 빠리어 경전에는 Sotthanan(복지), Sotthiya(행복), Sira(安泰), Siri(吉運), Bhadda(吉瑞), Mangala(吉祥)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불교에서는 복지를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조성되는 것이란 뜻으로 복행이라 하기도 한다.⁷⁾

불교사회복지의 핵심은 “사회과학적 입장에 있는 복지사업에 단지 불교학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학에 의해 해명된 인간과 세계에 관한 자각을 필요로 하는 것⁸⁾이다.

미즈타니 코쇼(水谷辛正)는 불교가 인간 사회에 전개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형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불교이념이 인간에게 받아들여져 실현된 모든 것을 사회복지라고 보고 있다(水谷辛正, 1974, 16-17). 즉 불교사회복지는 불교를 주체로 하는 복지활동이며, 불교정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회적 실천이다. 따라서 불교의 모든 것이 복지활동이라고 본다(水谷辛正, 1982, 18).⁹⁾

그러나 우에다 치아키(上田千秋)는 “이타적 행위를 사회복지에 포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교논리만 가지고는 사회복지를 자본주의 제도를 관철하는 구조적 이론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¹⁰⁾고 지적하고 있다.

7) 김용택, 『불교 사회복지론』,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6), p.24.

8) 모리야 시게루(寸屋茂), 『佛敎社會事業の基本問題』, 『印度學佛敎學研究』 15卷 1-2호 (京部: 法藏館, 1966-1967), pp.218-220.

9) 조보각 외, 『불교사회복지개론』 (서울: 운주사, 2012), pp.29-30.

모리야 시게루(寸屋茂)는 『불교사회사업 연구(佛敎社會事業研究)』에서 “현대의 사회복지론은 사회과학 내지 그 응용의 총체이므로 사회과학만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의 연구는 과학이 지닌 평균화·보편화·추상화에 의해서 구체적인 인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결점을 갖고 있다”¹¹⁾고 비판하면서, 사회복지에 불교가 보완될 때 비로소 유용한 사회적 구제가 된다고 하였다.

서병진은 사회문제를 모든 존재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선상에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 공존하는 緣起論적 관점에서 보고 “불교+사회복지=불교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에 불교의 가치규범이나 원리·사상 등을 대입하여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적 계기로 삼아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¹²⁾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진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불교적 실천이 곧 사회복지활동으로 동일시하는 것이고,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민간부분의 자율적 실천으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 스스로 불교사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보편성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응용 실천능력의 균형적인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III. 사회복지활동과 종교발전의 관계

1. 사회복지활동과 종교발전의 상관성

10) 권경임, 『개정증보판 현대불교사회복지론』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p.38.

11) 모리야 시게루(寸屋茂), 「佛敎社會事業の基本問題」, (京部: 法藏館, 1971), pp.39-40.

12) 서병진, 『New Guide 불교사회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솔바람, 2010), p.89.

1) 복지와 종교의 역할

사회복지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이타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동기이고, 둘째는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및 지적자원이며, 셋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전달체계이다.

종교는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민간 부문이다.¹³⁾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우선 인간에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는 그 종교의 성장과 발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복지 활동 정도에 따라서 그 종교가 얼마나 사회적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사회에서의 종교적 기반은 그 지역사회의 지지와 적극적인 가입으로 확립될 수 있다. 사회복지활동은 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는 초석이 된다. 많은 재정과 봉사 인력이 투입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도들은 후원활동을 하고 직접 자원봉사에 동참하며, 종교단체는 사회복지기관과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신도들이 사회복지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교세면에서 정체되어 가고 있는 일부 종교계의 돌파구로서도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단체에서의 사회복지활동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각 종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 가

13) 노길명, 「종교사회복지성격과 과제」, 『종교와 사회』 제1권 제1호, 2010, p.194.

고 있다.

종교사회학자들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으로 사회통합을 지적하며, 나아가 종교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구호활동 및 시민의 권익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복지제도가 발달한 오늘날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복지기능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복지와 교세증가의 연관성

한국의 다원주의적 종교상황이 종교 간의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는 사회복지활동의 참여 정도가 그 종교의 생존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선교 혹은 포교의 가장 좋은 방편의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선행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여러 종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통해 사상적으로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실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종교의 기능을 그 사회복지기능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 결과 포교나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에 대한 종교의 참여는 간접 선교나 포교의 효과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복지수혜자에게는 결정적인 포교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를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것이다. 이에 복지수요자에 따라 선교나 포교효과도 가중될 수 있을 것이다.

① 한국 천주교 복지선교

한국 천주교는 교회창립 초기부터 나눔을 비롯한 사회복지활동을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었다. 구빈사업은 주로 명도회와 같은 평신도단체를 통해 전개되었지만 개인단위로도 상부상조의 행위는 일반화되고 있었다. 한국천주교의 사회복지활동은 1854년 고아들에 대한 유료위탁 양육사업을 전담하는 성영회의 창립으로 연결되었으며, 1885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복지시설인 고아원과 양로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¹⁴⁾

1970년대의 나눔활동은 빈곤자나 장애자에 대한 물질적 구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한 사회운동과 병행하면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나눔활동은 지금까지의 물질적이고 치료적 차원의 일변도를 벗어나 빈곤과 억압 등 인간의 존엄성을 제약하는 사회의 근원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개혁이라는 정책적 차원의 활동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¹⁵⁾

② 개신교의 복지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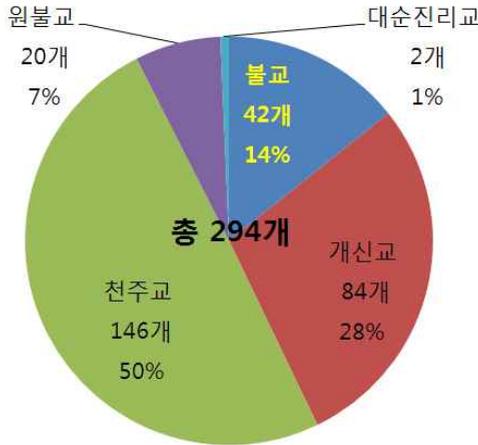
한편 한국 개신교는 역시 초기부터 사회복지활동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다. 초기부터 적극적인 선교활동은 자제하면서 지배계급과 친화관계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민중에 대한 의료활동과 교육활동에 주력하였다.

먼저 의료활동의 경우, 2011년 종교단체별 종립 요양·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총 294개 가운데 천주교가 50%(146개)로 우리나라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개신교는 28%(84개)로 불교 14%(42개) 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신교의 선교활동이 불교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 노길명, 『민족사와 천주교회』 (서울: 한국교회사연구, 2005), pp.185-206.

15) 노길명(2005), 전게서, p.210.

<그림 1> 종교단체별 종립 요양·의료기관 현황¹⁶⁾



교육활동의 경우, <표 1> 2011년 종교단체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총 555개 학교 가운데 개신교가 238개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불교는 32개로 전체의 6% 수준이다.

<표 1> 종교단체별 종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현황¹⁷⁾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그밖의 종교	계
초등학교	1	22	6	8	37
중학교	15	90	28	88	221
고등학교	16	126	38	117	297
계	32	238	72	213	555

16)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한국의 종교 현황」

17)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한국의 종교 현황」

그리고 <표 2> 종교단체별 종립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 139개 가운데 개신교는 105개로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한 반면 불교는 8개로 6% 이하 수준으로 개신교가 불교에 비해 무려 23여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부터 종교 이념과 가치를 심화시킴으로써 확립된 종교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전문 인력을 그만큼 많이 양성해냈음은 물론 전문 인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표 2> 종교단체별 종립학교 현황(전문대학 이상)¹⁸⁾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그밖의 종교	계
일반대학	4	52	14	2	2	74
대학원/대학교	2	20	-	3	-	25
전문대학	-	29	1	1	1	32
원격대학	2	1	-	2	-	5
각종대학	-	3	-	-	-	3
계	8	105	15	8	3	139

오늘날의 이러한 결과는 개신교의 교회들이 한국 전쟁기간 중 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구호물자의 전달창구로 기능을 하였고, 또한 전쟁고아를 비롯하여 빈민과 전쟁미망인들을 위한 활발한 구제사업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전 이후 다양한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이어졌고, 이후 각 기독교대학의 사회복지과 설립은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즉, 개신교는 구제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사회복지를 통한 집중적인 선교활동을 펼침으로써 비종교인들에게 그들의 이념과 가치를

18)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한국의 종교 현황」

널리 알리고, 민중을 선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단단한 기반을 다진 것이다.

개신교 교회의 경우 시작단계에서는 신도들의 영성 개발과 교육 등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수백 명 이상의 교인이 확보되면 사회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사회 종합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¹⁹⁾

첫째,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의 신앙적 동기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회복지활동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이 기독교의 신앙적 동기와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궁극적이고 종말적인 목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독특한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체계의 사회복지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사회문제와 취약계층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실천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종합한다면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적 영성을 개발하고 확립한 기초 위에서 봉사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특별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사업이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에 내려오면서 천주교나 개신교의 복지사업은 새로운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복음전파사업을 간접적으로 촉진시켜 이로 인해 교회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19) 유장춘,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2002, pp.96-98.

있다.

③개신교의 복지와 선교의 연관성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7개 교단²⁰⁾ 교회의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기독교의 복지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교인수 증감과 사회복지 활발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할수록 신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할수록 신도수가 감소하는 추세²¹⁾로 나타났다.

즉,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매우 활발’일 경우 신도수는 전혀 감소가 없었고, 오히려 신도수가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이 3.0%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활동이 ‘매우 저조’일 경우 신도수가 39.7% 감소한 반면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도 12.1%나 나왔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교인수 증감과 사회복지 활발성의 관계²²⁾

(단위: %, 명)

	신도수 감소	신도수 동일	신도수 증가	전체
매우 저조	39.7	11.6	12.1	15.8(64)
저조한 편	39.7	45.9	32.7	41.2(160)
그저그렇다	8.6	26.0	24.2	29.4(92)
활발한 편	12.1	16.0	27.9	19.1(82)
매우 활발	-	0.6	3.0	(6)
계	100.0	100.0	100.0	100.0

**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한 교회일수록 신도수가 증가하고, 저조할수록 신도수가 감소한다.

20) 7개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기독교장로회,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21) 이혜숙 편저, 『종교사회복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pp.151-152.

22) 이혜숙(2003), 상계서, p.152.

김미숙(1999)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활동 활발성 정도와 최근 3년간 개신교회의 신도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인 수 증감과 사회복지 활발성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과 교세의 증가와는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호응도와 교인 수 증감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²³⁾

즉, 주민이 지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많은 호응을 보일 때 교회가 간접적으로 주민에게 소개되어 교인 수가 증가하게 된다. 교인 수가 증가하면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물적·인적 자원이 증가하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이 더욱 활성화된다. 따라서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혜택의 대상이 됨으로 해당 종교에 대해 더 많은 호응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도수의 증가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활동 호응도, 양자는 상호 상승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은 종교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박탈-보상 이론(deprivation-compensation theory)에 따르면, 교회가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마련해 줄 때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박탈감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비교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그렇게 느끼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활발한 복지활동은 선교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가치구조 이론(value structure theory)에 의하면 교회의 가치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징적 표상이 될 때 교회에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가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

23) 김미숙,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 역할과 활성화 방안」, (제6차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 협의회 심포지엄 2003), p.13.

되고 있는 사회에서 교회가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사람들은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²⁴⁾

이로써 사회복지활동이 종교의 성장 및 발전과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에서 개신교+천주교를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종교의 대사회적 활동이 교세의 흥망과 성쇠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종교의 대사회적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이다. 종교적 색채나 선교 의도를 띠지 않더라도 사회복지활동 그 자체가 바로 선교나 포교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복지 포교의 이해

1) 복지 포교의 정의

복지란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안녕의 상태를 의미한다. 즉 형성된 조직의 이해관계나 질서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포교는 불교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해시키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고(苦)를 여의고 락(樂)을 얻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복지와 포교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복지도 결국 포교를 위한 수단의 일환이다. 불교의 최고 목표는 離苦得樂, 해탈이다. 중생들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해주고, 불교[開示悟入]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믿게 하며 실천하게 함으로써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24) 이원규(李園圭), <http://www.wonlee.pe.kr>

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포교이다. 따라서 복지 포교란 불교가 주체가 되어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통한 중생구제 활동이다.

2) 복지 포교의 주체

포교의 실천적 주체는 승려나 포교사이다. 포교사란 본래 포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수행의 차원을 넘어 불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승려와 일반신도 사이에 위치하며, 상황과 공간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在家指導者를 말한다. 포교사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포교를 펼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82년 대한불교 조계종은 산하에 종단정책의 일환인 포교사제도를 마련하고, 재가 신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포교사를 양성해 왔다.

전문포교사의 전문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신행지도 전문포교사로서 어린이·청소년·청장년층 포교분야의 직장·직능 및 군경교도서 포교분야, 교육 및 수행 포교분야로 나뉜다.

둘째, 문화예술전문포교사로서 불교문화해설 포교분야와 출판·인터넷 포교분야, 예능·스포츠 포교 분야로 나뉜다.

셋째, 사회·복지전문포교사로서 환경·평화·인권(외국인 근로자 포함) 및 통일포교분야와 자원봉사·복지 및 포교분야, 법률·의료 및 상담 포교분야로 나뉜다.

3) 복지 포교의 대상

일반 사회복지의 대상이 전 국민이듯 복지 포교 역시 그렇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개별 능력의 차이로 사회적 약자가 일정 비율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제도화된 정책의 일률적인 시

행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는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사회복지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층·노인·장애·아동 등을 비롯한 약자, 교도소·병원·군대 등 사회와 분리되어 생활하는 특수 계층과 사회복지의 물질 복지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모두를 복지 포교의 대상으로 본다.

이렇듯 사회에는 구성원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나 심리적·정서적·종교적 욕구 등 다양한 생활양식이 존재하며, 저마다 존중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포교방법은 계층별 특성과 환경, 심리상태 등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례가 『승만경』에 잘 나타나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제 몸을 위해서는 재물을 저축하지 않겠고, 무릇 받은 것이 있으면 모두 가난하고 곤궁한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제 몸을 위하여서는 4섭법(布施·愛語·利行·同事)을 행하지 않겠고, 온갖 중생들을 위해서 애착하지 않는 마음과 만족함이 없는 마음과 거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섭수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만일 고독하여 의지할 데 없거나 구금을 당하였거나 병이 나거나 가지가지 액난과 곤란을 만난 중생들을 만난 중생들을 보게 되면 잠깐도 그냥 버리지 않겠고, 반드시 그를 편안케 하기 위하여 의리로 도와주고 그 고층에서 벗어나게 한 뒤에야 떠나겠습니다.²⁵⁾

이와 같이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으로 평등하게 대하며,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구제하고자 했던 승만 부인의 서원은 복지를 통한 포교방법과 실천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수혜자에게 제도화된 틀로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사회복지 대상과는

25)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

달리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정신적 지원도 필요한 수혜자 전체를 대상으로 본다. 최근에는 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복지를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민간의 활발한 사회복지에의 참여를 요구한다.

4) 복지 포교의 실천원리

복지 포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통한 중생구제로 귀결되는 활동으로써 그 실천원리를 보시(布施)·애어(愛語)·이행(利行)·동사(同事)의 사섭법(四攝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시(布施)는 물질이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줌으로써 도움을 주는 행이다. 애어(愛語)는 빈곤이나 정신적 소외로 곤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부드럽고 사랑스런 말로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행이다. 이행(利行)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신보다는 대상자의 이익과 행복을 먼저 이롭게 하는 이타행이다. 동사(同事)는 대상자와 일심동체가 되어 그들의 삶에 들어가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에 근거를 둔 행이다.

이러한 사섭법의 공덕을 『중아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거사의 아들이여, 네 가지 섭사가 있나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혜시(惠施)요, 둘째는 애어(愛語)이며, 셋째는 이행(利行)이요, 넷째는 동리(同事)이다. 은혜를 베풀고 정답게 말하며 항상 남을 위하여 이롭게 행하고 중생과 함께 이익을 같이 하면 그 좋은 이름 멀리 퍼지느니라.²⁶⁾

26) 『중아함경』 제33권; 『선생경』 제19.

이와 같이 복지 포교의 실천원리를 상대방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물질·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정법을 믿고 설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바른 생활태도와 인격적인 개선을 원조하며, 좌절이나 실의에 빠진 대상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줌으로써 함께 고통을 나누어 행복으로 이끄는 지고한 행이다.

5) 복지 포교의 실천방법

붓다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각기 다른 방편으로 중생구제를 행하였다. 전륜성왕이라고 추앙받는 아쇼카 왕(B.C 268-232 재위) 역시 힌두즘에서 불교로 귀의한 후 철저히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특성, 대상자에 따른 다르마를 법으로 제도화하여 실천한 이상적인 불교사회복지사업가였다. 붓다와 아쇼카 모두 사회복지사업가임과 동시에 대포교사로서의 제 역할을 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에 그대로 계승·발전되어 현대사회의 특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교사가 포교대상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포교와 간접포교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포교는 포교사와 포교대상이 직접적인 대화나 설법, 강의 상담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직접 포교하는 방법이다. 간접포교는 포교주체와 포교대상자 사이에 언론이나 서적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포교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 포교방법은 언론이나 출판,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사보(寺報) 같은 포교매체를 통한 것이다. 또한 방송, 통신, 광고, 슬라이드 광고판 등의 시청각교재나 연극, 영화, 무용, 체육 등 각종 스포츠, 미술, 음악과 같은 방법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 외에 포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활동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의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1999)』 결과에서 ‘사회복지활동 포교’가 4.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회복지활동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포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종단에 소속된 복지법인과 시설들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사찰의 신도들이 자원봉사나 후원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설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자연스럽게 해당 종교를 접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통한 이미지 제고(提高)는 포교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불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전법과 교화, 즉 포교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실제로 종교는 간접적 선교나 포교로 자기존재의 사회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교리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천주교와 기독교가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한 것은 적극적인 복지활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3. 복지 포교의 역사

1) 한국불교의 복지 포교 역사

① 전통적인 포교방법

불교의 각종 의식을 비롯하여 가람, 법구, 행사, 법회 등의 모든 내용에는 포교를 위한 방법과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전통적인 포교방법은 대부분 직접 포교보다는 간접 포교의 형식을 띠는 것이 많았다. 전통사찰의 문화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여 자연스럽게 사찰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동참하게 함으로써 신행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사찰의 승려나 신도들이 포교라는 관점이 아니라 문화적 접촉을 촉진하는 구실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포교활동은 간접 포교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현대적인 포교방법

현대적인 포교방법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오도록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신도교육과 조직화 등은 이미 사찰을 찾아와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새로운 신도의 유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대적 포교방법에 이르기까지는 해방 이후 시대 상황에 따라 큰 변화를 보였다.

현대적 포교방법은 1986년 9월 해인사승려대회를 통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즉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소승적 형태를 보여 온 조계종이 불교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자는 선언과 함께 정권을 비호하는 어용불교의 모습을 반성하고 대중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새로운 호국불교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전과 다른 사회정화의식을 표방해 새로운 불교운동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²⁷⁾ 이로써 불교는 새로운 포교의 전기(轉機)를 맞이한 셈이다.

이후 2000년까지는 지역, 계층, 직장, 직능별, 맞춤형 포교를 위한 조직화시기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교리에 대한 해석과 대중화를 위한 역경의 강조, 신도교육의 활성화, 의례의 간소화와 실용화, 일요법회의 활성화 등은 시대 상황에 적응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기독교의 교육, 의료, 빈곤, 복지사업 등을 통한 세계선교방법을 벤치마킹을 하게 된다. 특히 1995년 曹溪宗 社會福祉財團이 발족하게 되어 사회복지전개의 터전이 되었다. 불교계 매스컴 불교방송과 불교 텔레비전이 개국되고, 다양한 신문과 잡지가 등장해 다양한 매체포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문화, 휴식, 복지, 불교가 융합된 불교적 정체성을 유지한 복합적인 포교방법과 양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비불교인 또는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힐링(healing)과 명상, 상담심리의 활

27) 법성, 황필호 외, 『민중불교탐구』 (서울: 민족사, 1989), pp.105-106 참조.

성화, 사찰음식의 일반보급, 생태환경운동, 생명나눔운동, 빈민국 복지 활동, 불교의 NGO, 다도의 보급 등은 웰빙(well-being)이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재인식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이 모아진 포교방법은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을 통한 포교다. 복지 포교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유도해냄으로써 불교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포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2012년 7월 말 현재 1,065여 개에 달하고 있다.²⁸⁾

또한 종교단체별 사회복지사업 주요법인 현황²⁹⁾에 따르면 총 507개 가운데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은 25%(125개)로 개신교 49%(25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천주교는 21%(10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적으로는 개신교의 절반 정도이지만 단기간의 놀라운 성장은 향후 긍정적 기대를 유도한다.

짧은 시간 동안 발전의 길을 걸어온 현대불교복지는 또한 지자체의 복지관 수탁 운영 증가에 따라 대규모 복지시설에 불교계 법인들이 대거 참여,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4. 불교사회복지의 현재

1) 불교사회복지의 현황

1981년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사회건설을 4대 국정지표로 내세워 출범하면서 복지 관련법들이 수정 또는 제정되었고, 1988년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빈부격차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는 중앙정부가 관

28)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관련자료 2012년 7월30일 현재/불기2556(2012)년 제2회 종단산하 사회복지법인 대표 시설장 워크숍자료.

29)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한국의 종교 현황」

장하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듯 198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교계에도 활발한 복지활동 전개가 이루어졌다.

1989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1995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1997년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1998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1999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개인불자 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뿐 아니라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사업 참여가 가속화되었다. 2012년 7월말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1,065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조사연구」³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2009년 기준 958개소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6년 477개소에 비해 481개소가 증가한 것이며, 1995년 95개소와 비교했을 때 15년 간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불교계의 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이 가운데 이용시설이 76.5%로 733개, 생활시설 23.3로 223개, 그리고 이용+생활시설이 0.2%로 2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30)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 제10호, pp.1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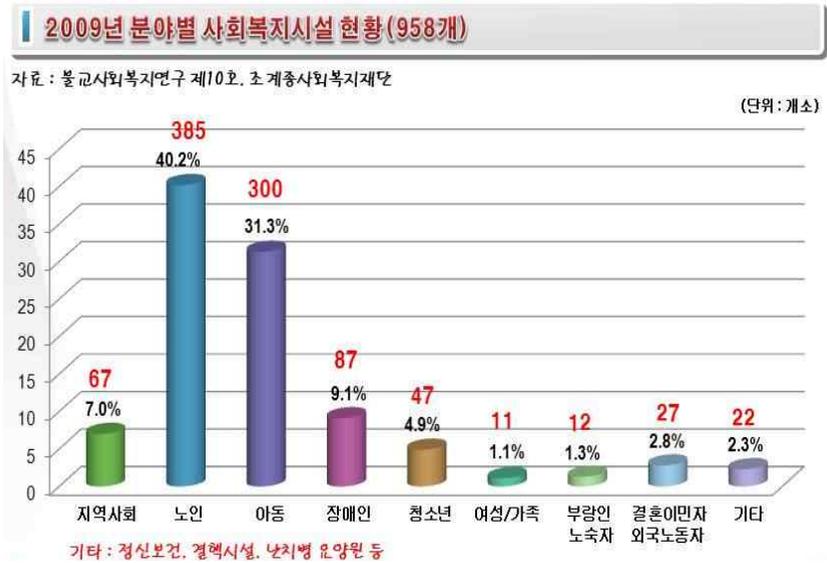
<그림 2> 불교사회복지시설 증가추이와 종교별 현황 비교



한편 타 종교와 비교해보면, 천주교회 통계(2009)에 따르면 천주교 사회복지시설이 1,264개이고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2009. 12. 기준)의 통계에는 기독교의 3종단(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감리회)이 1,097개, 원불교가 190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³¹⁾ 이 결과에서 보듯이 불교계도 사회복지에 많은 부분을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31) 상계서, p.15.

<그림 3>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2009년 기준 958개소의 불교사회복지시설을 분야별로 보면 <그림 3>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와 같이 노인복지 40.2%(385개)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 31.3%(300개), 지역사회복지 7.0%(67개), 장애인복지 9.1%(87개) 등의 순³²⁾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상담, NGO 등 사회복지 전 분야로 복지범위를 확대해 현대사회의 니즈(needs)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불교계가 노인과 아동 등 일부 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여성·가족복지, 부랑인 및 노숙자, 결혼이민자·외국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포괄적 복지실천이 아주 미흡함을 알 수 있다.

2011년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은 125개로 전체의 25%³³⁾를 차지하고

32) 전계서, p.16.

33)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한국의 종교 현황」

있으며, 운영주체는 2009년 기준 조계종이 약 54%, 재가자가 33%, 기타종단이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³⁴⁾

또한 시설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77.7%(744개), 사찰 10.0%(96개), 재단법인 6.1%(58개), 사단법인 4.2%(40)개의 순이고, 종단별로는 조계종이 80.0%(766개), 진각종 4.4%(42개), 태고종 1.5%(1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가자도 8.8%(84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설장은 과반수 이상(58.2%)이 재가불자이고, 비구·비구니(35.9%), 무종교인(4.3%)의 순으로 나타났다.³⁵⁾

시설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8.5%, 경기 14.2%, 그리고 경북 11.2% 순으로 전국의 약 과반수(53.9%)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랑인및노숙인 시설과 난치병요양원은 극히 제한된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⁶⁾

2) 불교사회복지와 포교연관성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의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1999)』 결과에 따르면, 포교방법의 효과성을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 활동 포교’가 4.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불교대학 등 교육 포교’가 4.12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수련회 등 집단 포교가 4.01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놀랍게도 전통적인 포교방법인 ‘법회 포교’는 3.98점으로 4위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포교지 등 문서 포교’가 3.2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불교 자원봉사자 활동에 참여한 불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은 복지수혜자는 물론 자원봉사자 자신에게도 매우 큰 의미를 주는 활동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비불자에게는 불교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을

34) 전계서, p.20.

35) 전계서, pp.19-20.

36) 전계서, p.26.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포교효과로 해석되며, 자원봉사 당사자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깊게 느껴짐으로써 자신의 신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또한 포교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³⁷⁾

이렇듯 불교계의 사회복지활동은 큰 포교효과를 낳았으며, 가장 효과적인 전법포교방편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불교이념의 현실화를 통해 포교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한국불교종단의 조직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IV. 불교사회복지 실천사례

불교는 붓다의 성도에서 출발하였고, 불교의 복지실천은 초전법륜이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맥은 2500여 년의 시간을 거쳐 오늘날 한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붓다는 도를 이룬 목적이 바로 죄와 고통에서 해매는 중생들을 구하기 위함³⁸⁾이라고 천명(闡明)한 바, 이것이 곧 불교의 복지실천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불교복지실천의 원천인 붓다와 아쇼까의 복지실천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현대사회에서 계승·실천하고 있는 대만 자계공덕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7)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 이해론』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8), p.288.

38) 『出曜經』 권19 「生華品」(大正藏4, p.710上), “吾今永世以來修無數行求成佛道 正爲罪苦人耳.”

1. 붓다와 아쇼카의 복지실천

붓다는 성도 후 45년간을 곤란·빈궁·병고·고독 등에 대한 구제에서부터 토목·교통·주거·육탕 등의 사회공익사업을 직접 하기도 하고 제자나 신도들에게 적극 장려하였다는 사실은 경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붓다의 구제행적은 중생구제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고 고통 받는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의 ‘구세제민(救世濟民)’으로 대표할 수 있으며, 복지실천의 원류(源流)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생명존엄과 평등사상이며, 현대의 민주주의의 이념과도 부합한다.

전륜성왕이라 일컫는 아쇼카(B.C 268-232 재위)는 힌두즘에서 불교에 귀의하여 붓다의 사상(思想)을 이어받아 자신에게 부과(附課)된 의무(義務)는 현세(現世)·내세(來世)에 있어서 일체 생명체의 이익·안락을 도모(圖謀)하는 것으로서³⁹⁾, “모든 백성의 행복을 도모하는 일보다 더 숭고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⁴⁰⁾라고 하면서 다르마(dharma, 법)에 의한 통치자로, 그의 정치적 실천의 목표는 오직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⁴¹⁾라고 복지사상 이념을 극명(克明)하게 나타냈다.

그는 생명존중 불살생(不殺生)의 입장에서 무력정책을 버리고, 영토의 內外에 인간과 동물을 위한 二種의 病院을 건설하고, 여행자를 위하여 길가에 과실 나무를 심고 휴게소와 우물을 파는 일, 약초 재배, 사람을 위한 요양원(療養院)과 동물의료센터의 설치 등 생류(生類)의 복지사업에 힘썼다. 그것은 宗教團體의 봉사활동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복지청을 창설하여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추진, 그야말로 다르마(法, dharma)에 의한 이상세계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39) RE Ch 10.; E. Hultzsch(1925), p.17b.

40) RE Ch 6.; E. Hultzsch(1925,) p.11b.

41) PE Ch 6.; lokassā hitasukhāye.; E. Hultzsch(1925), p.128,b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지향하는 ‘佛國淨土’ 건설⁴²⁾이다.

이와 같이 붓다와 아쇼까의 구체행적은 현대사회의 각 분야별로 분류하면 노인, 가족, 아동·청소년, 여성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복지실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붓다와 아쇼까의 구체행적을 경전적 혹은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크게 ①노인, ②가족, ③아동·청소년, ④여성, ⑤의료, ⑥지역사회복지로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노인복지

붓다는 “세상에 가장 행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과 작은 은혜라고 잊지 않는 것⁴³⁾”이라고 하여 보은정신에 입각한 효(孝)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는 의식주 등 물질적 공양뿐 아니라 나아가 부모님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정신적 공양까지가 자식의 도리임을 설하였다.

나는 말한다. 사람들이 은혜를 갚아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두 분이 있다고. 그 두 분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한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다른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백년을 산다 해도, 이렇게 하면서 백 세까지 간다하더라도, 그리고 약을 발라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팔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

설령 부모님을 칠보로 가득한 이 지구의 최고의 통치자로 모신다 해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 왜 그럴까?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하여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시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자식

42) 서병진, 『아쇼까(Aśoka, 阿育)왕의 福祉思想 研究』(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05), p.4.

43) 『增一阿含經』 권10 「勤請品」(大正藏2, p.596,中), “世間有二事最不可得云何爲二有反復之人作小恩常不忘況復大者.”

을 기르고, 음식을 먹이고, 이 세상을 안내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부모님은 격려하여 믿음을 심어드리고, 그 믿음을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며, 부도덕한 부모님은 격려하여 계행 속에 살도록 돕고, 그 계행을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며, 인색한 부모님은 격려하여 지혜를 심어드리고, 그 지혜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부모님이 은혜를 갚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부모님에게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는 사람이다(양곳따라 니까야 2부 4:2).⁴⁴⁾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는 비록 얼마 남지 않은 목숨과 기력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노인이 의지할 곳⁴⁵⁾이라고 하여 바르게 늙는 법을 설하였다.

또한 노인의 참뜻은 나이가 많아 노인이 아니라 노인의 법을 성취하여야 노인의 숫자에 들어간다고 하여 오욕의 향락을 추구하는 탐욕을 버리고 청정행(淸淨行)을 닦을 것⁴⁶⁾ 등을 설하였다.

아쇼카 역시 붓다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⁴⁷⁾이라며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강조하였고, 죄수가 노인이거나 혹은 노인이 있는 罪人の 금전적인 지원과 석방, 정법 여행 중 노인들을 방문하여 금을 하사하는 등의 행적이 마애법칙 제5장과 제8장, 제11장 등에 기록되어 있다.

2) 가족복지

김수환은 가족의 정의에 대해 “제1차적인 복지추구집단이다. 인간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가족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가족은 구성원 개인의

44) 일아 편역, 『예경독송집』 (서울: 민족사, 2008), pp.80-81.

45) 『別譯雜阿含經』권5 (大正藏2, p.403,a-b)

46) 『雜阿含經』권20 제547경 (大正藏2, pp.141,a-142,a)

47) RE Ch 3.; E. Hultzs(1925), p.5.

복지적 상태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이다. 이는 가족이 사회를 유지·존속, 계승·발전시키는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⁴⁸⁾

따라서 가족은 개인의 삶을 실현시키는 장인 동시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이다. 구성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빈곤이나 자원의 결핍, 가족 내 성원간의 가치관의 차이, 역할갈등, 피부양자의 보호문제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 간의 윤리를 붓다는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역할과 권리,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 내 관계의 윤리를 『교계 싱갈라 경』⁴⁹⁾은 이렇게 전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아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로 동쪽 방향인 부모를 섬겨야 한다. ‘나는 그분들을 잘 봉양할 것이다. 그분들에게 의무를 행할 것이다. 가문의 대를 확고하게 할 것이다. 유산인(부모의 훈육대로) 잘 실천할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잘할 것이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아들은 동쪽 방향인 부모를 섬긴다.

그러면 부모는 다시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로 아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①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② 선(善)에 들어가게 한다. ③ 기술을 배우게 한다. ④ 어울리는 아내와 맺어준다. ⑤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경우로 아들은 동쪽 방향인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다시 이러한 다섯 가지 경우로 아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이렇게 해서 동쪽 방향은 감싸지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⁵⁰⁾

48) 김수환, 『가족복지론』 (경기: 공동체, 2009), p.28.

49) 각목 율김, 『디가니까야 제3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6), p.311.

50) DN 31, 28.

“장자의 아들이여, 남편은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로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겨야 한다. 존중하고, 알보지 않고, 바람피우지 않고, 권한을 넘겨주고, 장신구를 사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은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긴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로 남편을 사랑으로 돌본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바람피우지 않고, 가산을 잘 보호하고, 모든 맡은 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경우로 남편은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다시 이러한 다섯 가지 경우로 남편을 사랑으로 돌본다. 이렇게 해서 서쪽 방향은 감싸지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⁵¹⁾

아쇼까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노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장려되는 바⁵²⁾라고 기록하고 이를 정법으로 실천하고자 하였음이 마애법칙 제3장과 제4장 등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3) 아동·청소년복지

불교는 아동·청소년을 축소된 성인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상을 추구하고 가꾸어가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추구하는 발전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장난이나 놀이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형성 과정 가운데 중요한 단계이며, 아동의 순수성은 성인도 본받아야 할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⁵³⁾

이러한 가치관이 잘 나타난 경전이 바로 『화엄경』인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고, 어른들로 하여금 순수한 마음에서 참다운 지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쇼까는 죄수들 가운데 어린 자녀가 있으면 금전적인 지원을 하

51) DN 31, 30.

52) RE Ch 4.; E. Hultzs(1925), p.8.

53) 조보각 외, 『불교사회복지개론』 (서울: 운주사, 2012), p.115.

거나 석방⁵⁴⁾해 주는 일을 교법대관의 역할로 규정짓고 실천토록 함으로써 아동 보호와 양육에 힘썼다. 이러한 행적이 마애법칙 제5장과 석주법칙 제4장 등에 기록되어 있다.

4) 여성복지

붓다는 성별, 계층, 직업, 나이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교화하였으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여성이 남성과 다르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승만경』이 있다. 이 경전 속에 등장하는 승만 부인은 여성이면서 재가자로서 불교에 귀의해 ‘보광여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은 후 열 가지 서원[十大受]⁵⁵⁾과 세 가지 큰 서원[三大原]⁵⁶⁾을 세우고, 정법섭수(正法攝受)를 설한다.

여인의 서원과 성불로 회중에 있던 대중이 함께 구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여성 평등관을 표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외에 창녀 500명을 거느린 유녀(遊女) 암바바리를 교화한 사례를 통해 일반 여성이 아닌 요보호 여성을 위한 구제행적도 실천하였다.

아쇼까는 많은 관리들을 두는 가운데 여자들을 감독하는 관리⁵⁷⁾와 유녀(遊女)들을 감독하는 관리⁵⁸⁾를 따로 두어 관리하도록 한 기록을 보아 붓다와 마찬가지로 요보호 여성까지를 포괄한 여성복지를 실천하였다. 이 사례는 마애법칙 제12장 등에 기록되어 있다.

54) RE Ch 5.; E. Hultzsch(1925), p.33.

55) ① 계를 범하지 않겠다, ② 교만하지 않겠다, ③성내지 않겠다, ④ 질투 혹은 탐하지 않겠다, ⑤ 인색하지 않겠다, ⑥ 가난하고 불쌍한 중생을 위해 보시하겠다, ⑦ 중생을 위해 사섭법을 실천하겠다, ⑧ 고통받고 재난당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⑨ 불법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인도할 것이다, ⑩ 불법을 수지해 잊지 않을 것이다. 10가지 서원.

56) ① 정법(正法)의 지혜를 얻는 것, ② 정법의 교시(敎示), ③ 정법의 호지(護持)

57) RE Ch 12.; E. Hultzsch(1925), p.22.

58) RE Ch 12.; E. Hultzsch(1925), p.43.

5) 의료복지

현대의 심신 일원론적 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는 먼저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육체의 병을 치료하게 하는 의학이다. 그리고 현재 나타난 질병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발병할 수 있는 상병까지도 치료하게 한다. 붓다를 대의왕(大醫王)이라고 칭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⁹⁾ 또한 붓다는 의사와 환자, 그리고 간병인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각각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하였다.

『선생경』에 보면, 의사로서의 의무와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가르침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만약 환자가 가난하고 재물이 없으면 의사는 의학 처방의 여러 가지 주술(呪術)을 외우고 열심히 간호하고 영양을 제공하고 치료하라. 만약 환자가 재산이 있으면 권장하여 여러 가지 탕약을 혼합하여, 가서 환자를 보고 의학의 처방을 강구하고 진찰로 병의 소재를 알고 그 병의 소재에 따라 치료를 가하라. 병을 치료할 때 방편을 잘 알아서 더러운 곳에 있더라도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지 말라. 병이 증대하면 그 증대한 것을 알고 병이 손상되면 그 손상된 것을 알고, 또 이런 약이나 식품은 병고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약과 식품은 병고를 덜어줌을 알고, 환자가 만약에 병을 증대시키는 약이나 식품을 요구할 때는 방편을 취하여 잘 타일러야 한다. 통명스럽게 없다고만 말하지 말라, 만약 없다고만 말하면 병고를 더할지도 모른다.”⁶⁰⁾

그리고 환자는 ①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② 이로운 것의 한계를 알고, ③ 적절한 약을 쓰고 ④ 쾌차를 바라는 간병인에게 병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⑤ 이미 일어난 몸의 느낌을 견딜 수

59) 진각종보, 1997, 8. 1.

60) 이경훈, 『불교의학』 (서울: 경서원, 1987), pp.51-52.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섯 가지 긍정적 요인을 갖춘 환자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도 좋은 간병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쇼까는 일반인을 위한 의료시설(醫療施設)을 최초로 설치한 사례(事例)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동물을 위한 병원까지 곳곳에 설치하여 의료사업(醫療事業)을 실시하였던 것이 주목할 만하며, 붓다는 사상적 실천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아쇼까는 통치자로서 복지청을 신설하고 정책과 제도로 복지실천을 했다. 아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과 동물의 의료진료센터 외에 치료(治療)를 위한 나무나 약초(藥草)가 없는 지방에는 묘종(苗種)을 배포(配布)해서 이를 심어서 재배하도록 했다고 마에법칙 제2장 등에 기록되어 있다.

A. 데와남쁘리야 뿌리야다르쑤(Devānāmpriya Priyadarśin)왕의 모든 영토에서, 그리고 (그의)국경 주민 가운데 초다(Chōḍas), 뻘디아(Pāṇdyas), 사띠야뿌따(Satiyaputa), 께딸라뿌따(Kētalaputa)와 심지어 따므라빠르니(Tāmrāparṇī), 요나(Yōna)의 왕 안띠야까(Antiyaka)와 또한 이 안띠야까(Antiyaka)의 이웃나라 왕들(의 영토)도 역시—모든 곳에서 두(가지 종류의) 의료진료센터가 데와남쁘리야 뿌리야다르쑤(Devānāmpriya Priyadarśin)왕에 의해 설립되었다. (즉)사람들을 위한 의료진료센터와 가축을 위한 의료진료센터이다.

B. 그리고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이로운 약초가 없는 곳은 어디든지 약초를 들여와 재배하게 하였다.

C. 약초의 뿌리와 과일이 없는 곳은 어디든지, 그것들을 들여와 재배하게 하였다.⁶¹⁾

6) 지역사회복지

붓다는 여러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토목사업의 공덕을 강조하며 권선한 사례가 많다. 여행객들을 위해 도로에 나무를 심어 그늘

61) RE Ch 2.; E. Hultzsch(1925), pp.3-4.

과 과일수를 제공하거나, 객사를 짓거나, 강에 다리나 배를 놓아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붓다의 행적은 현대사회의 지역주민 혹은 그 지역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장아함경』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탐을 세우고, 정사(精舍)를 세우고, 과일수는 청량함을 베풀고, 교선은 사람을 건네주고, 광야에 수초를 기르고, 또 당각(堂閣)을 짓는다. 그 복(福)은 나날이 증대한다. 계를 갖추고 청정(淸淨)한 자 그는 반드시 선방(善方)에 이른다.⁶²⁾

아쇼까는 길가에 우물들을 파고 나무들을 심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길가에 보리수와 망고나무를 심으며, 매(每) 8크로사(1크로사는 약 1마일 간격)로 우물을 파는 등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편의(便宜)를 도모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지역복지사업의 一環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가축과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길가에 보리수를 심고, 망고나무를 심게 하였다.

S. 그리고 8 kōs (간격으로) 우물을 파고, (물가에 접근하기 쉽도록) 강둑에 층계를 설비하게 하였다.

T. 가축들과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곳저곳에 물 마시는 곳을 여러 군데 설치하게 하였다.⁶³⁾

붓다와 아쇼까는 이 외에도 장애인, 재소자 등 특수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실천을 실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입증되었다.

62) 『長阿含經』 2; 『遊行經』(大正藏1, p.14,b)

63) PE Ch 7.; E. Hultzsch(1925), pp.134-135.

이상으로 붓다와 아쇼까는 개인을 비롯하여 사회의 공영(共榮)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였으며, 생명에 대한 존엄에서 기인한 것으로 결국 개인의 생(生)에서 사(死)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가 그랬듯이 아쇼까 역시 최하위 계급인 노예부터 사문에 이르기까지 평등하게 예우해주고, 심지어 동물의 생명까지 존중하는 등 철저히 붓다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그리고 평등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에 입각한 복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천하였다. 이것이 붓다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비유컨대 붓다는 일반인들의 복지를 위해 힘쓴 자각운동으로 오늘날의 NGO와 같다면, 아쇼까는 국가정책으로 표방하여 제도화한 과학적인 실천방법으로 현대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21세기 현대에서 불교가 이 둘의 접합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복지포교의 수단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 대만 자제공덕회⁶⁴⁾

[一眼觀時千眼觀, 一手動時千手動]

한 사람의 눈이 천 사람의 눈을 보게 하고, 한 사람의 손이 천 사람의 손을 움직인다.”는 증엄 스님의 믿음은 설립 40여년 만에 자선·의료·교육·문화 등의 4대지업(四大志業)을 활발히 벌이게 하는 자제공덕회의 원동력이 되었다.

1966년 증엄 스님은 신도의 문병 차 화련 鳳林지역의 어느 병원에 들렀다가 원주민 고산족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러 8시간을 걸어 병원에 왔지만 의료비와 보증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 바닥

64) 서병진, 『New Guide 불교사회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솔바람, 2010), pp.220-232 인용요약

에 피를 낭자하여 유산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 일을 계기로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자제공덕회의 창립 인연은 이렇게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자비회사(慈悲喜捨)는 자제공덕회가 국내외에서 벌이는 대만불교 복지사업의 실천이념이다. ‘자(慈)’는 자선과 국제구호, ‘비(悲)’는 의료와 골수기증, ‘희(喜)’는 문화와 지역사회사업, ‘사(捨)’는 교육과 환경보전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1) 자선복지사업

1969년에 정사정사를 완공하고 각종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빈민구제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빈민구제 활동은 ‘장기구제’와 ‘긴급구제’로 나누어 85세 이상의 빈민과 환자들을 무상으로 돌봐주고 치료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제 대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구제 방법을 채택하였다.

① 갑(甲)종은 의지할 곳도 생활 능력도 없는 자들로 장기구제 활동 시행, ② 을(乙)종은 약간의 생활능력은 있으나 수입과 지출이 불안정한 자들로 장기구제에 필요한 생활비의 10분의 3을 지원, ③ 병(丙)종은 일시적인 생활 곤란자로 사정을 감안하여 구제해준다.

2) 의료복지사업

1972년 ‘무료빈민진료소’를 설치하여 매주 2회의 무료진료와 각 지역의 순회진료를 시작하였다. 이후 1979년 증엄 스님은 병원 건립을 구상하고, 1986년 각계에서 기부한 기부금으로 ‘존중생명(尊重生命)’의 이념을 내걸고 ‘자제종합의원’(慈濟綜合醫院)을 개원하였다.

‘자제종합의원’은 여러 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첫째, 대만에서 처음으로 병원의 보증금제도를 폐지시킴으로써 국공립 병원들의 병원보증금제도 폐지로까지 이어져 실질적으로는 대만 의료체제를 개혁

한 결과를 낳았다. 둘째, 지역 수준의 자선단체에서 전국적 성격의 자선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자제공덕회를 사회 현실에 부응하는 당대 불교단체의 모범으로 현대 대만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셋째, 연약한 비구니의 지도 아래 중년부녀자들의 역량으로 현대화된 병원을 갖게 된 것이다.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자제종합의원’이 가져다 준 의의는 대만 국민들에게 사회적 공감과 대만불교 자제공덕회로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1993년 ‘자제기금회 골수기증자료센터’를 설립하였다. 1996년 12월까지 여기에 3만5천 명이 등록되었고, 이것은 국내 환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의 환자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이 센터의 골수은행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며,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의료활동은 처음 자제공덕회를 발족하게 만든 근본으로 현재 총 6곳의 병원이 개원되어 대만 전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주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 학교복지사업

1982년 ‘자제의학청한장조학금(慈濟醫學清寒獎助學金)’을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해 주었으며, 그 후 1986년에는 ‘자제도려문화복무중심(慈濟道侶文化服務中心)’을 설립하여 불학예술장학금 등을 시행하였다.

1989년에는 ‘자제간호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했다. 이 학교 학생의 10%는 그 지역의 원주민이었으며, 1999년에 승격하여 ‘자제기술학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4년에는 의학·공공건강·의료기술·간호 대학원과 의과 대학원을 갖춘 ‘자제의학원’을 개교하였다.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1998년 의학과 사회보호성을 가지는 종합대학으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이어 2000년에는 ‘자제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동시에 인문사회 · 생명과학 · 교육 · 의학 등 4개 단과대학으로 확대되어 4년제 정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는 한편, 인문학과 생명학 중심의 대학으로의 특성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함께 자제대학 부설 중 ·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등도 운영하는, 이른바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4) 문화복지사업

1967년에는 <자제월간(慈濟月刊)>을 창간하여 불교관련 논문을 신기 시작했고, 1998년에는 대북 · 화련 등 5개 지역에 위성방송,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갖춘 대애(大愛) TV도 개국했다. 이를 통해 증엄은 사심 없이 사랑을 베푸는 ‘대애사상’을 실천하였으며, 일반 신문 <자제도려(慈濟道侶)>와 중문 · 영문 · 일문 등 3개 국어로 발간하는 월간 잡지 <자제> 등을 발간하며 불교의 자비사상을 전파하였다.

2006년 초에는 타이페이의 관뚜(關度)에 ‘자제인문지업중심(慈濟人文志業中心)’을 건설하여 기존에 설립했던 평면 잡지 · 방송국 · 출판부 등 문화사업에 관련된 사업부문을 이곳으로 옮겨와 좀 더 체계적인 문화 환경을 만들어 사람들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현재 대만에서 종교민간단체 입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NGO로 손꼽히는 단체가 바로 불교 민간단체인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이다. 자제공덕회는 현재 전 세계 70여개 국, 5만여 명의 위원과 500만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병원 · 종합대학 · 방송국 등의 산하시설 직원 수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을 갖춘 공민단체로서 구제가 필요한 곳에 제일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는 대애(大愛)를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제공덕회의 증엄 스님은 불교 정신과 교리에 기초하여 국적 · 인종 · 종교를 초월한 구체적인 복지실천을 행한 이 시대의

대보살이자 아쇼까라고 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대만 사회는 물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호응을 이끌어내 직·간접적인 포교뿐 아니라 불교복지실천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NGO이며, 불교사회복지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⁶⁵⁾

대한불교조계종은 1995년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총무부 산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관리자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보육시설 37개소, 청소년육성시설 1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 노인복지시설 1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5개소, 사회체육 및 청소년수련시설 14개소, 자활후견기관 5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총 133개 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직영시설은 영주 보현마을, 제주 자광원, 노인생활가정 자인원, 룬비니동산 어린이집과 그룹홈, 재가노인복지시설인 금오노인복지센터와 신륵복지센터가 있다.

또한 종단에서 운영하는 직영시설로는 노인요양원 고운실비노인요양원·동화사노인요양원·백양실버타운·불국성립원·영은사노인요양원·월정사노인요양원·은해사포근한집·직지사노인요양원의 8개 시설과 풍기어린이집·중대사연꽃어린이집 등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재단은 일개 복지단체가 아닌 조계종단 전체와 불교를 넘어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그리고 각종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초하루 순회 바자회

65) 서병진(2010), 전계서, pp.176-183 인용요약.

개최, 난치병어린이 돕기 1배 100원 모금(3,000배 정진기도), 자비의 쌀, 연탄, 김장 나누기 등의 사회복지자원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라오스에 아동보건센터 설치를 구상하여 건축비, 의료네트워킹 구축과 장비 구입비 등 총 10억여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예방접종과 보건교육은 물론 저소득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며 국제구호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존에 추진하던 희귀난치병과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한국의 의료진 파견과 중환자의 한국 이송도 고정적인 기본사업으로 추진⁶⁶⁾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재단은 불교계의 80%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및 사회 각계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정책 추진과 제도시행에도 참여함으로써 종교계 사회복지재단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⁶⁷⁾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1989년 8월 19일 승려들에 의해 설립된 ‘불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후 ‘연꽃마을’은 불교계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붐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2012년 현재 70개의 산하시설에 1천여 명이 종사하고, 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연꽃마을은 보건·복지·의료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의 선진모델로 제시되는 국내 교계 중 가장 큰 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⁶⁸⁾

연꽃마을은 노인요양시설 5개, 군모매화종합사회복지관·부곡종합

66)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http://www.mahayana.or.kr>

67) 서병진(2010), 전계서, pp.192-201 인용요약.

68)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http://www.lotusvill.org>

사회복지관 등 8개, 경로식당 11개, 파라밀방문요양서비스센터·평택 주야간보호센터 등 재가노인시설 22개, 광명시립어린이집·수원아동 홈 행복한집 등 7개, 위드커피 2호점, 중증장애인요양원의 장애인시설 2개 시설 등 다양한 사업전개를 하고 있다. 또한 노인전용병원으로 260병상 규모의 파라밀洋韓方療養병원을 비롯하여 청주광명의원, 수원광명의원, 대구동구복지의원 등 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오랜 현안이었던 승려 노후복지 문제 해소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승려 간병비 및 요양비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서출판 연꽃마을을 운영하며 연꽃마을 신문을 제작하고, 노인문제연구소, 승려간병비지원심의위원회, 노인문화진흥회, 노인용품전시관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베트남에 한국형 국제연꽃마을 사회복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베트남 광남성 교육위원회에 매년 500만원의 장학금을 1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해오면서 한국형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제의받아 본격적인 (사)국제연꽃마을(www.국제연꽃마을.kr)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 국제연꽃마을은 베트남 광남성 탐기시에서 기증한 2만평(7만 m²)의 토지에 교육시설(세종학당, 직업훈련원, 수련원), 복지시설(노인요양원, 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병원, 의료지원센터) 등이 세워지며, 2013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이와 같이 연꽃마을은 조직의 사명과 비전, 확신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갖추어 지난 20년간 불교복지를 향한 열정, 끝없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보이며 구체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것이 20년 전 무(無)에서 지금의 연꽃마을을 키워온 것은 佛心의 原動力이라 할 수 있으며, 불교사회복지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V. 불교사회복지의 과제와 방향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경험한 사회현상들을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이혼의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를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계는 폭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공공자원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데 있어 과거보다 더 진보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방안모색에 접근해야 한다.

1. 불교사회복지의 당면과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수혜대상자로부터 기관 및 시설,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통로로서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제도적 틀, 안배적인 역할 분담, 그리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이 구성됨으로써 제 기능과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사회복지는 그간의 양적 성장 이면에 아직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

- 1) 각 종단·교구본사 법인설립 및 단위사찰별 사회복지팀 설치
정부 복지정책 역시 지자체 중심으로 지화, 분권화 되고 있는 흐름

이다. 조계종단의 경우, 현재 25교구 중 복지법인이 설립된 교구본사는 직할교구 등 13곳 뿐이며, 대부분의 군소종단은 한 곳의 복지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각 종단, 교구본사 중심의 복지시스템 구축은 효율적인 복지시설관리와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불교복지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각 단위사찰에 사회복지 전담팀을 설치하는 것이다.

사찰이 운영주체가 되어 다양한 불교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은 첫째 사찰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실시는 불교사상에 근거한 불교의 사회적 책임이며, 둘째 사찰의 포교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고, 셋째 현재의 공공복지를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⁶⁹⁾

즉, 1사찰 1사회복지시설 체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복지 욕구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사찰이 보유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교양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거나 사찰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어린이집·주간노인보호소·무료도시락배달사업, 재가방문요양사업 등을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신도 조직을 활용하여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개발할 수도 있다.

2) 직영시설의 건립과 운영 및 다각화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관리와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불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법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직영시설이 39.9%, 위탁시설이 60.1%⁷⁰⁾로 두 배 가까이 위탁시설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불교계가 정부의 위탁시설 운영에 치중할 경

69) 임해영, 「사찰의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불기 2547년 조계종사회복지』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3), pp.101-102.

70)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 제10호, p.23.

우,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위탁시설은 종교계가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을지라도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어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규정⁷¹⁾에 따라 불교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한이 따른다.

그에 반해 직영시설은 어떠한 규정도 저촉됨이 없이 자유롭게 불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을 불교적 소양을 가진 전문가들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직영시설의 건립과 운영의 증가는 더 이상 타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화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지 포교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현 불교사회복지시설이 아동과 노인복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소수자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여성 결혼이민자, 미혼모센터 등 취약한 분야의 복지시설 다각화를 통해 불교사회복지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해야 한다.

3)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확대

현대는 복지 소비자의 욕구와 대상이 다양하여 단순한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불교적 사상과 철학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Ⅲ. 사회복지활동과 종교발전의 관계에서 밝혔듯이, 종교단체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현황은 총 555개 학교 가운데 개신교가 238개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불교는 32개로 전체의 6% 수준에

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조 ⑤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시행령 제38조.

머물렀다. 그리고 종교단체별 종립학교(전문대학 이상) 현황 역시 전체 139개 가운데 불교는 8개로 6% 이하 수준이고, 개신교는 105개로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여 무려 23여 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종교 이념과 가치를 심화시킴으로써 종교 이념과 가치가 확립된 전문 인력을 그만큼 많이 양성해낼 뿐 아니라 많은 전문 인적 자원의 보유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개신교는 선교 차원에서 종립학교를 많이 설립함으로써 비종교인들에게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여서 선교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도 어린 연령부터 불교이념과 가치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종립학교 증설은 물론 전문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각 종립대학교에 불교사회복지학과나 상담, 장례문화 등의 전문강좌를 증설하거나, 혹은 정신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교심리학이나 불교상담학 등의 과를 증설하여 불교정신복지서비스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채용된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불교마인드를 지니도록 재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을 위한 재교육 및 연수교육기관 설립도 촉구하는 바이다.

4) 불교사회복지연구원 설립

불교사회복지는 각 종단별, 법인별, 시설별, 개인별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지만 불교만의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구·교육 및 개발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폭증하는 복지수요자와 급변하는 복지욕구, 그리고 이용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교사회복지연구원 설립은 필수 불가결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는 주로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 자원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21

세기는 글로벌 영성의 시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영성과 영적 자원, 즉 정신적 자원의 개발과 적용이 연구와 실천의 과제가 되리라 전망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불교사회복지도 영성과 영적 자원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⁷²⁾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복지 분야의 연구 또한 불교사회복지연구원의 역할로 제기되는 것이다.

‘정신복지’는 대상자에게 정신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불교만이 보유한 사상적 자원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성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물질복지와 함께 정신복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불교사회복지연구원 설립은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5) 사회복지재원의 확보

공적 전달체계와 달리 민간 전달체계는 재정부분에 있어 취약하다. 불교계 역시 민간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있어 재정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각 종단·교구본사·개별 단위사찰에서 수입의 일정 부분을 복지포교 기금으로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출된 재원은 지역사회 빈민구제와 천재지변, 장학금, 복지시설에 출연(出捐)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후원금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후원위원회’를 설치해서 범불교도 차원의 일반 기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재원마

72) 권경림, 「현대불교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향」, 『불교평론』 51 (서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2)

런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또한 연합모금 방법이다. 연합모금은 공동모금회와 불교계의 복지관이 모금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액을 양자가 배분하는 방식이다.

셋째, 복지관이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부나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넷째, 개별사찰에서는 사회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사찰 내에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보시함을 설치하거나 후원회를 결성해 바자회 및 일일차집이나 사찰특산품을 판매하는 특별판매행사를 통한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겠다.

2. 불교사회복지의 방향

이상과 같이 ① 각 종단·교구본사 법인설립 및 단위사찰별 사회복지팀 설치, ② 직영시설의 건립과 운영 및 다각화, ③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확대, ④ 불교사회복지연구원 설립, ⑤ 사회복지재원의 확보 등 다섯 가지로 불교사회복지가 당면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는 획일적·연속적·통합적·효율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하위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사항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해서 이상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완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위단계의 수행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지휘·총괄하고 관리·감독할 중앙기구 설립이 불교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에 논자는 ‘한국불교복지재단(가칭)’ 설립을 제언하는 바이며, 우선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축이 되고, 조계종·태고종·천태종·진각종 4대 종단이 발기하여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그리고

재단설립추진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재단설립 준비와 재원마련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할 임시사무국을 설치한다.

이로써 한국불교복지재단의 설계도는 완성되었고, 다음으로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 그리고 재단의 조직기구 및 운영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불교복지재단의 재원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각 종단·교구본사·법인·개별 단위사찰의 동산 및 부동산을 기부받아 기초재원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고정 분담케하며, 각 단위사찰을 통해 기부운동을 전개한다.

불교유관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각 신행단체,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불자회 등의 후원을 유도한다. 일반인부터 기업인, 실업인, 독지가, 불자기업인, 기업복지재단, 해외교포 독지가와 2천만 불자들은 물론 전 국민의 기부를 이끌어내는 모금운동 방안이다.

이러한 재원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이 홍보전략이다. 재단의 자체 홈페이지 제작은 물론 정부기관 및 기업, 각종 유관관계와의 협약을 맺음으로써 그들과 링크사이트를 맺고, TV·광고판·전단지 배부·거리캠페인 등 각종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한국불교복지재단의 조직구성이다.

한국불교복지재단은 현재 각 종단별, 법인별, 교구본사별, 단위사찰별, 개인별로 복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one-stop으로 구축하여 불교계 사회복지활동 전체를 하나로 통합·지원하게 될 중앙기구이다.

그리고 사업의 전문성 및 다각화,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전 불교사회복지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

다.

다음으로는 재단 산하에 업무 특성에 따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① 물적·인적 자원 등 재원동원을 전담하는 공동기금회, ② 불교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전담하는 연구기관, ③ 분야별 복지현장에서 실행하게 될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구교육 및 개발을 전담하는 사업기획팀, ④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갖춘 전문교육기관, ⑤ 재단 내의 연구결과 발간 및 외부로의 재단홍보를 전담하는 문화부를 설치한다. 또한 ⑥ 각 종단, 교구본사, 각 법인, 단위사찰과의 연계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⑦ 각 단위사찰마다 사회복지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상호연계체계를 위한 종적·횡적 조직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한국불교복지재단의 운영이다.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 및 기관은 보건가족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불교사회복지의 경우 전 불교를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는 물론 법적·제도적 장치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의 전문성 및 다각화,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로써 불교와 불교사회복지 모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종단·법인·교구본사·단위사찰의 사회복지팀은 사무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상호연계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복지수혜자 욕구와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공유가 원활해져 지역사회에 불교사회복지의 기반을 다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무국에서 1차적으로 취합된 복지욕구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전담팀의 업무특성에 따라 분담하고, 다각적인 접근방식들을 통해 해결방안을 추론해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앙 기구에 정식적으로 안건이 제시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통과 과정을 거쳐 복지수혜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운영방식이

다.

이러한 한국불교복지재단의 운영체계는 종단 간, 법인 간, 교구본사 간, 단위사찰 간, 개인 간의 상호연계체계와 사회복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유기적인 상호지원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불교만의 독자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의 기획에서부터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관련 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거나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개인부터 중앙기구에 이르기까지 종적·횡적인 범 불교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춧돌이자 상호교류 및 의사소통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며, 그로 인해 획일적·연속적·통합적·효율적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설립·운영된다면 전 불교계는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화 되고, 중생복지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불교복지재단의 설립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VI. 결론

불교사회복지는 붓다의 신앙적 동기와 수행관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다시 말하면, 붓다의 가르침이 사회복지활동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사회복지운동이 붓다의 신앙적 동기와 수행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불국정토 건설, 행복이라는 공생운동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즉, 불교사회복지는 불교체계의 사회복지 자원들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사회문제와 취약계층,

전 국민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실천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불교가 이러한 대사회적 실천행을 하는 목적은 불교의 이념과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다함께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구현에 있다. 이러한 활동을 포교라고 한다. 결국 복지와 포교, 불교와 사회복지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 바로 인간의 행복 추구로 귀결되는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 활동이 종교의 교세를 확장 또는 축소하는 요인임을 전술한 바와 같이 불교도 현대에 이르러 포교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불교사회복지활동을 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귀결된다. 이에 한국불교복지재단의 설립을 시급히 추진하고, 특히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에 다각적 노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설립·운영된다면 전 불교계는 하나의 통합된 불교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화되어 불교포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며, 중국에는 행복정도, 중생복지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Digha Nikāya(長部), PTS

『別譯雜阿含經』 권5, 大正藏2

『雜阿含經』 권20, 大正藏2

『長阿含經』 2, 大正藏1

『增一阿含經』 권10, 大正藏2

『勝鬘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出曜經』 권19, 大正藏4

권경임, 「현대불교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향」, 『불교평론』 51, 서울: 만해사 상실천선양회, 2012

권경임, 『개정증보판 현대불교사회복지론』,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각목 스님 옮김, 『디가니까야』 제3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6

김미숙,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 역할과 활성화 방안』, 제6차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 협의회 심포지엄, 2003

김수환, 『가족복지론』, 경기: 공동체, 2009

김용택, 『불교 사회복지론』,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6

노길명, 『민족사와 천주교회』, 서울: 한국교회사연구, 2005

노길명, 「종교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종교와 사회』 제1권 제1호, 2010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 이해론』,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 제10호

법성, 황필호 외, 『민중불교탐구』, 서울: 민족사, 1989

서병진, 「아쇼카(Asoka, 阿育)왕의 福祉思想 研究」,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서병진, 『New Guide 불교사회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솔바람, 2010

유장춘,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2002

이경훈, 『불교의학』, 서울: 경서원, 1987

이해숙 편저, 『종교사회복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임해영, 「사찰의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방」, 『불기 25447년 조계종사회복지』,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3

일아 편역, 『빠알리 경전에서 선별한 예경독송집』, 서울: 민족사, 2008

조보각 외, 『불교사회복지개론』, 서울: 운주사, 2012

조성희,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 『불교평론』 51호, 2012

조흥식, 「종교사회복지활동의 방향과 과제」,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제1회 심포지엄발표논문, 1998

퇴현, 전재성 편저, 『빠알리-한글사전』,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5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http://www.mahayana.or.kr>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관련자료, 2012. 7. 30

불기 2556(2012)년 제2회 종단산하 사회복지법인 대표·시설장 워크숍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한국의 종교 현황」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http://www.lotusvill.org>

이원규(李園圭), <http://www.wonlee.pe.kr>

진각중보, 1997, 8. 1.

寸屋茂, 『佛教社會事業の基本問題』, 京部: 法藏館, 1971

寸屋茂, 「佛教社會事業の基本問題」, 『印度學佛教學研究』 15卷 1-2호, 京部: 法藏館, 1966-7

Hultzsch, E. The Inscriptions of Aśoka Vol. 1, 1925

Abstract

Korean Buddhism and Social Welfare

Seo, Byung-jin(Sung-un)

(Instructor, Dongguk Univ. of Graduate school of Buddhist Strdies)

People seek to realize their ideologies and values by many means. Of these, the oldest and most established is religion. Religion involves social welfare activities about universal charity, and no other religion upholds respect for and equality of all living things more than Buddhism. Its practices can b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as a way of saving all people.

Unlike the traditional societies of the past, new social issues have arisen against the rapidly-changing social environment. Their resolution calls for social welfare in terms of policy and institutional mechanism. Social welfare includes various social activities intended to improve the welfare of individuals and the public.

Buddhist social welfare engenders all social activities in which Buddhism plays a central role and pursues society's well-being and happiness based on Buddhist values, norms, principles, and philosophy. Buddhism and social welfare both seek to resolve the causes of people's agony and problems in real life.

The purpose of such practical Buddhist actions for society is to disseminate the ideology and values of Buddhism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and make all people happy. Such activities are proselytization. Welfare and proselytization, and Buddhism and social welfare are all directed to achieving one goal: realizing people's happiness.

Social welfare activities by Korean Buddhism are actions conducted for the benefit of society and the most effective means of dissemination. Religious participation in social welfare activities is crucial to the continued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religion. The degree of such participation is a major factor in society's recognition of its importance.

This justifies the need for today's Buddhist social welfare. Buddhist ideas should be translated into reality, and approaches toward social welfare should be explored to maximize welfare for all people and further solidify the found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Land of Ultimate Bliss of Amitabha Buddha in the world.

Key words

Religion, Buddhism, Social welfare, Buddhist social welfare, proselytization, Welfare for all people.